朝鮮日報
朝刊
編輯兼發行人 方應謨 印刷人 崔進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 株式會社朝鮮日報社

社說

昌慶苑入場者 僅三千人 ―入場料를原價대로내리라―

一

李王職에서 經營하는 昌慶苑이 四十萬 京城府民은 말할것도 업고 地方으로부터 京城에 구경오는이의 無二의 休憩處가 되고 娛樂場이 된은 누구나 認定하는 바이다。그것은 昌慶苑이 都市에서 맛보기 어려운 散策에 適當한 廣濶한 境域과 珍奇한 動植物과 貴重한 歷史的 記念物과 이에 알마즌 近代的 設備가 잇슴에도 不拘하고 公開料가 十錢이란 廉價이기때문이다。萬一 以上과가티 設備가 完全하드래도 公開料가 비싸다든가 公開料는싸드래도 設備가 不完全하다할진대 可히 四十萬府民乃至 地方遊覽客의 休息場이오 娛樂處가 될수업다。이런點으로 보면 李王職의 昌慶苑 經營은 單純한 營利를 目的한것이 아니오、利害를 超脫한 民衆的 機關으로 公開하라는 意圖임을 알수잇다。

二

그런데 最近 李王職事務當局에서는 夜櫻의 公開하는 十餘日間을 期하야 從前의 公開料 十錢을二十錢으로 引上하야 四十萬府民 及地方訪春客의 休息處요 娛樂場이 되지못하게하얏다。本紙는 이미 이入場料引上의 不當한것을 評하바 잇거니와 公開第一夜인 十一日夜의 入場者數를 보고는 一層 그 不當을 論하지 안흘수업다。例年가트면 적에도 一萬人을 算할것이 틀림업슴에도 不拘하고 겨우三千人을 不過하얏다는것은 이入場料의 비싼대문이 아닌가。十錢과二十錢과의 間에는 겨우 十錢의 差異밧게 업다하겟지만、貧者의 十錢은 富者의 十萬圓보다 貴重한 때가잇다。貧者의 一燈、富者의 萬燈이란말은 옛날부터 잇는것이 아니냐。어찌 細民의 十錢、二十錢이 적은것이랴。

三

李王職事務當局의 辨明에依하면 갑이싸므로 入場者가 만코、入場者가 만흐므로 混雜을이르켜 不美한 結果를 내기 쉽다고한다。그러나 이때껏 混雜을 이르켜 무슨不美한 事件이 發生하얏든가。또 이結果를 想像한다할지라도 人員을 制限하는 方法은 他에도 잇슬것이다。假令一日入場者를 一萬人으로 適當타認하면 그以上은 入場시키지안흐면조흘것이아닌가。入場시킴에 機會를 均等히주고 挨拶者 先之로 먼저 온이를 먼저 보게하는것은 어느 일에나 公平한 方法이다。돈에 制限을 두어가지고 一年一次 娛樂地로 생각되는 昌慶苑에를 못가게함은 도리혀 細民에 對한 殘忍한 處事라하겟다。

四

사람은 누구나 허물이 잇고 錯覺이 잇기쉽다。李王職은 一時의 錯覺으로 이러한 料金制度를 設定한줄로 밋는다。그러나 아즉도 期日이 十日이나 잇고、改正할 餘裕가 綽綽하니 이제라도 料金의 原料依復을 한대자 누가 批難할者 업슬것이다。善은 急히하란말이 잇다。

李王職은 모름지기 四十萬府民及 地方訪春客을 위하야 또 李王職의 昌慶苑 公開의 本意에 一顧하야 하루밧비 入場料를 原價대로 恢復하라。

獨逸政府當局서 『스』會議失敗豫言

佛蘇兩國間軍事同盟成立은 國際聯盟의無力化

【伯林十一日發聯合】獨逸政府當局은 스트레자會議의經過와 成果에深甚注意하고잇는데 佛蘇兩國政府間의 新協約成立을 非難하야 十一日左와如한見解를 披瀝하엿다

佛國政府와 蘇聯政府와의間에 事實上軍事同盟이成立된結果 國際聯盟은道義的으로나 實際的으로 顯著히微弱하게되엿다 佛蘇兩國政府間의 新協約은 形式만은 다르나 東歐로카르노條約의 主旨를 擴充한데 不外한다 그리고 뭇솔리니首相은 파시스트機關紙 포포로·데·이타리아紙上에 六十萬兵員常備를主張하고잇는바 佛伊兩國政府가 如斯한態度를 固執하는以上協調를 目的으로하는 스트레자會談의 成功은 可望이업는것이다

獨逸軍備宣言은 佛、斷然默過不能

默過하면第二、第三宣言豫想 會議終了後佛代表談

【스트레자十一日發聯合】第一日의會談終了後 佛國代表는佛國政府의立場을非公式으로 左와如히 述하엿다

佛國政府는羅馬協約과 倫敦宣言에明白한바와가티 獨逸政府의再軍備에對하야 充分히考慮할用意가잇스나 히틀러總統今回의一方的行動은 斷然許容할수업다 萬一如斯한不法行爲를 默過한다면 第二第三의 一方的行動에 歐洲政局은드듸어收拾할수업시될것이다 佛國政府는今回의 會議에서도 히틀러總統의 條約破棄行動을 먼저 檢討할것을 主張한다 獨逸政府宣言에基하야 再軍備를旣定의事實이라고 看做하는것은絶對反對이다。聯盟理事會에 對한提訴도 佛政府의 單獨責任에依하야 決行한것인데 提訴의 道義的目的에對하야 英伊兩國政府의 承認을要望不已하는바이다

스트레자會議 第二日日程

【스트레자十一日發聯合】스트레자會議第二日의討議는 午前九時半부터開始理事會에提出할 決議案과 倫敦宣言에基한集團的安全保障機構의具體案을 討議하리라고觀測되는 午前의討議는正午에 一旦散會하엿다가 三國代表午餐이잇슨後 一同은물프를行하고午後四時會議를續開한後 英佛兩國代表는 뭇솔리니氏主催의晩餐會에臨할豫定이다

白、滿國承認엔 經濟關係進展必要

【電通부럿셀十一日發】바질랑氏를 首班으로한 白耳義新內閣의 滿洲國承認問題는 今後滿洲國對白耳義經濟關係의 進展으로其實現이豫想되는狀態에잇다 卽白耳義議會外交問題委員會는 同委員會의報告委員인 元首相칼들로비알氏의報告에基하야 目下滿洲國承認問題를 研究中이다 右報告에는特히滿洲國白耳義經濟關係의促進을必要타고力說하야左와如히 述하엿다

白耳義는 哈爾賓에總領事館을 두엇슴에도 不拘하고滿洲國에 對한輸出國中 아직第八位에잇는狀態인데此際크게 對滿經濟關係의促進을圖할必要가잇다

맥도날英首相談

【스트레자十一日發聯合】第一日의會談을마치고 宿舍에도라온맥도날드首相은 말하되 今回의會議에서는 英佛伊三國政府가 絶對協調의事實을端的으로立證키爲하야 모든努力을앗기지안흘것도 勿論이다 外相、이든國璽尙書가 伯林을訪問한것은決코 英國政府가再軍備에反對치안는다는것을 獨逸政府當局에 알니기爲함은아니엿다

完全한諒解到達 프랑당首相談

【스트레자十一日發聯合】宿舍로 歸還한프랑당首相은 左와如히말하엿다

英佛伊三國政府는 共同一致로時局打開에努力하기에 苦心하고잇는데 今回의會議에서는三國代表가完全한諒解에到達되리라는것은거이疑心업다

受難의에디오피아! 所謂 國境紛爭問題로 强國伊太利의侵略에 끌치를 알는 唯一의黑人國 에디오피아는 晝夜로强敵排擊 熱心하고잇다 寫眞은 에티오皇帝가親히 國防軍을檢閱하는光景

英佛伊三國會議 波蘭政府等閑視

【와르소우十一日發聯合】佛蘇關係의進展에따라 多大한關心을 가지고잇는 波蘭政府는 今回成立한佛蘇間의 新軍事條項을 白眼視하고 右協約에反對의 態度를示하고잇다 一方各國 注視裡에十一日부터 열린三國 스트레자會議에對해서는 波蘭政府는별로關心을가지지안코 會議의成果에對해서도 疑問을가지고 成功을거두게되리라고期待하고잇지안타

伊首相、歐洲情勢 打診에全力傾注

【스트레자十一日發聯合】뭇솔리니首相은歐洲의安全保障確立에關하야 어떠한確定的提案을하리라고傳하고잇섯던바 十一日에至하야 뭇솔리니首相은右와如한提案을하지안코 今回의會談性質에鑑하야 專혀歐洲의情勢打診에全力을傾注하기로決定한것이 判明되엇다

무首相의態度 英國見解에接近

獨逸包含의全般的安全保障機構確立 但『爆彈宣言』에는反對

【스트레자十一日發聯合】스트레자會議開會前後를 通하야뭇솔리니首相의態度는 顯著한變化를示하야英國政府의見解에 接近하게되엇다고 解釋된다 會議에對한伊國代表의 立場은如左하다

一、伊太利政府는 可及的獨逸政府를包含한 全般的安全保障機構를確立하고십다 獨逸反對의 경우 形式하는것은 贊成할수업다

一、히틀러總統의 一方的行動을 看過할수업다는것은 勿論이나 獨逸政府의 徵兵制度實施에基한變化에對해서는 모든角度로부터研究하고십다

齋藤駐米大使 헐長官과會談

【電通華盛頓十一日發】駐米大使齋藤博氏는 十一日國務省에헐國務長官을 訪問하고日米通商關係의一般的問題에對하야 意見을交換하엿다 大使는日米通商關係에는何等根本的衝突을 招來할理由가업는所以를 强調하고兩國間에互惠通商條約을 締結하는것은現下의狀態로보아 日本으로서는要望하는바이다 ... 手를擧하야 贊成한다는뜻을述하엿다

佛蘇新協約成立 蘇政府發表

最近機會에正式調印

【莫斯科十一日發聯合】蘇聯政府는今回佛國政府와의間에 新協約이成立된事實을 十一日左와如히發表하엿다

佛蘇兩國政府는 全般的安全保障案을基礎로 今回兩國間의安全保障條約에同意하엿다 同協約案은最近 機會에正式調印을 보게될터이다

美濃部問題一段落 政府前途樂觀

【東京電話聯合】美濃部學說問題에關해서는 十二日閣議에서松田文相으로부터 美濃部博士는自發的으로 商大講師를 辭任하엿다 또京都帝大渡邊宗太郞博士도憲法을그만두고 行政法專任을請해왓슴으로 教授會는이것을 承認하고 雜談的으로 報告하고 美濃部學說에對한政府의 措置는이미終了되고殘存한 問題는司法處分을如何히할것인가이다 現在의情勢로보면世上의 一部分은姑捨하고政府의處置에 滿足하고잇는모양이므로이問題는 一段落으로보아도조타는意見이大勢를 占하야政府는이에前途를 樂觀하게된모양이다

集團的安全保障案 佛、關係國에提議?

東歐協商諸國과希、土諸國에

【巴里十一日發聯合】佛國政府는 集團的安全保障條約의成立을 要望하고잇는데 佛國도이것만으로 滿足하지안코 스트레자會議에서 成立을보게된集團的安全保障條約을强化하기爲하야 다시東歐協商諸國과 希臘、土耳其等과의사이에 相互援助協約을締結하려고此等各國에提議할意向이다

十一日政府當局言明

簡易保險新契約 三千八百餘萬圓

朝鮮簡易生命保險의 九年度新契約高는 二十萬六千二百二十九件 三千八百三十五萬二千二百圓으로前年度에比하야 一萬五百十六件 三百六十七萬七千圓의 增加라는好成績이다 如斯한好調를示한原因은九年度가마츰 本事業創始五...

西南을統制하려 蔣介石氏自身出馬

【漢口十二日發聯合】蔣介石氏는 中國統一의 最後의目標요가장難關이라고指目되는 西南派統制에 積極的으로 進出할決意를하고잇는 것을爲해서는 氏自身이親히西南에出馬하려고 準備에努力하고잇는데 廣東駐在代表蔣伯誠氏를急遽貴陽에招致하야 西南의事情을聽取하기로 決定하엿스므로 同氏는目下廣東으로부터 急行中이다 右結果蔣氏의 出馬가可하다는豫想이서면 드듸어自進하야 西南에進出하게될것이라고보인다

日蘇經濟關係增進次 川谷氏에歸國을命令

【東京電話聯合】廣田外相은北鐵讓渡交涉成立에依한日蘇間의友好關係雰圍氣를利用하야兩國國交의可及的平和確立을企圖하고잇는데 北鐵代價物品支拂部分을 受領하기爲하야蘇聯調査團이 近近訪日하고結果日本側으로부터 莫大한物資가蘇聯에流入하게되어 兩國貿易이 急速히增進할情勢에잇스므로 이機會를利用하야日蘇通商關係의 促進을 圖하려고 貿易을 遂行하려고 卽廣田外相은 蘇聯의 經濟情勢를 詳細히알必要를 痛感하고 駐蘇大使館商務書記官 川谷宇尤衛門氏에게 歸國命令을 發하야 同氏는 去八日莫斯科를 出發 來二十日頃에 着京하기로되엇다 그런데

一、同氏는約二個月間滯京하야 蘇聯五個年計劃其後의 進捗狀況及重輕工業、對外貿易의 現狀

一、日蘇通商貿易의 擴張策

一、經濟視察團의 交換

等에 關하야 詳細한 報告를 하고 同時에 重要進言을 할터이다

一事一言

明日의商工朝鮮

長白山人

朝鮮사람이 政治的自覺을 가지게된것은 獨立協會時代 卽約四十年前에 溯及할수가 잇스나 經濟的으로 自覺하게된것은 極히 最近의 일이어서 十年內外에 不過한다。「經濟的破滅」이란 文字를 하도 만히 써서 支離하리만큼 되엿다。政治的自覺이나 經濟的自覺이나 모다 絶望的 悲哀속에서 어든것이지마는 昨今年來에 朝鮮人의 商工業이 약간 健實한 進步를 보이는것은 東京大阪의 銀行에서 朝鮮商人의 手形의信用이 增加하엿다는 것으로도 알수잇슬것이오 또는 土地에서 土地를사는 朝鮮人이 增加한다는것도 經濟的再生의 一光이라고할수잇슬것이다。工業은 土地使用의 低廉、石炭、水電等動力의 豊富、滿洲、中國等市場에의 接近、日中關係의 變化等은 朝鮮工業化의 有利한 條件이 되니 비록 大資本의 壓迫이라는 憂慮가 업지아니하다 하더라도 이때는 바야흐로 朝鮮人이 工業的으로 大擧하야 商業、大活躍을 試할 때인가 한다。

大戰後의 쓴 經驗을 이저버릴만한 時期도 되엇스니 紡織業、人絹工業、製紙業等 새로 施設하는 者잇서야 有利한 工業에 進出할 때가 아닌가。

이리함에는 資本과 技術이 必要하지마는 먼저 民族的으로 更生、新興의 精神的體制를 整齊하여야할것이다。

定例閣議

【電通東京電話】十二日의 定例閣議는 午前十時二十分부터 開會、全閣僚出席、松田文相으로부터 憲法學說問題에關하야 美濃部博士가 東大、早稻田大學、中央大學의 講師를 辭任한것을 報告하고 最後에吉田內閣書記官長으로부터 最近의 綏遠狀態를 報告하고 內務、文部、農林三省關係의 東北農村振興應急施設計畫大要를 說明報告한後同十一時三十五分散會하엿는데 閣議에서 決定한事項은如左하다

一、麻藥의製造制限及分配取締에關한條約御批准의件

一、朝鮮臨時利得稅令制令案

治外法撤廢委員會

【東京電話聯合】滿洲國治外法權撤廢委員會는 二月十三日第一回會合을行하고 爾來前後三個月에 亘하야 治外法權撤廢에關한具體的問題를 調査研究이어던바 滿洲國皇帝陛下의 御來訪御出迎에 爲하야滯東中인 駐滿大使館參事官谷正之氏를 迎하야 十二日正午外務次官官邸에서 第二回委員會를 招集하고 關係各課長이 出席한다음 谷參事官으로부터 滿洲國의 現地報告를 聽取하고 滿洲國側의撤廢에關한 準備工作과 希望、課稅問題其他에關하야 互相質疑應答을反覆하고同二時散會하엿다

夕刊後市況 十二日

◆大阪 短期 氣配◆
大新 九○○○ (不變)
鐘新 一三三八○○ (不變)
日產 九七四○○ (不變)
東新 一四六三○ (不變)

◆橫濱 生糸 後引◆
當限 六○八○○ 先限 六○七○○

◆福井 人絹 後引◆
當限 六五一○ 先限 六四一○

協調를强調하나 英政府態度模糊

前途推想全然不許

【스트레자十二日發聯合】英國代表는會議의內外를通하야 英佛伊三國間의 協調關係를强調하고宣傳에熱中하고잇는데 英國政府의 態度는 참으로微妙를極하야 全혀知를不許한다 十一日夜의三國會議는 原則上意見의相違를보이지안코 會議는友好的雰圍氣裡에終了하고 맥도날드首相、싸이먼外相은 理事會에提出할決議草案의 字句修正을要請하엿다고傳한다 또佛國政府의 聯盟提訴에對해서도

一、佛國政府의 提訴覺書에對하야 今回의會議에서修正을加할것은업다

一、三國共同決議案이 成立되터라도 理事會에決定의事實을提出하는것은아니다

라고 聲明에努力하고잇다 但獨逸政府의 一方的行動排擊에는全然異議가업고 國際條約의精神을確保하자는데에는 英佛伊三國代表의意見도 全然一致한다고解釋되다

英代表꼿까지 佛伊와協力强調

【스트레자十一日發聯合】히틀러總統의再軍備宣言以來 佛國政府는三國政府間의協力關係에 對해서부터動搖가生한것이아닌가 생각되던바 맥도날드首相과 싸이먼外相은스트레자會議 第一日의席上에서英國政府의意向을 宣明하고꼿까지佛伊兩國政府와 連帶하야歐洲安全保障强化에 協力하겟다는旨를强調하엿다

藏相就任內諾을 首相이兩相에報告

【電通東京電話】岡田首相은十二日朝高橋藏相을 訪問하고內閣審議會副會長에 就任해달라고懇請한結果正式으로 內諾을어덧스므로定例閣議前、首相으로부터町田床次兩相에對하야 이뜻을報告한바잇섯다 그리고四長老會議는高橋藏相의 希望에 依하야今日은 行하지안코다음 機會에 延期하엿다

和蘭金本位問題와 日本金利關係

高橋藏相의財政談

【電通東京電話】高橋藏相은閣議散會後 藏相官邸에서最近國內金利事情과 和蘭金本位問題에對하야말하엿다

最近短資의 昂騰에依하야從來의低金利傾向이 逆으로되는것이아닌가고傳하고잇는데 低金利趨勢도 그基調에는今後도何等變化는업슬것이다 一時的騰貴는不得已한일이다 오히려小幅動搖라면 每日이라도歡迎해도조타 要컨대 大幅動搖는警戒할것이다 和蘭은金本位擁護의際、再度金利를引上하엿는데 이에依하야 그目的을達할수잇슬는지疑問이다 目下스페큘레이터의活躍의好機이므로 國內資本의流出을防止하는것은 相當히困難할것이다

人事·集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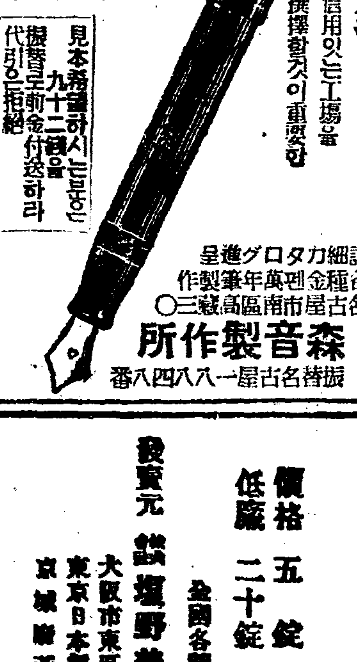
◆金瑞圭氏(前慶北道知事) 退官 人事次來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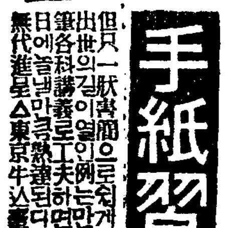
イマツ製品 蠅取粉 殺虫劑 芳香油

今津化學理學博士·發明
파리는勿論 엇더한 家庭害虫이든지 容易하게全滅! 液體殺虫劑와는 効力判異
▼꼭家庭에一罐식을!
(全國藥店에有)
愛用者 優待 景品 1 綾八端座蒲團(五帖) 2 特製晴雨兼用女洋傘(一本) 3 三越特選割烹着(一着) 4 食卓容器附味の素(一個) 5 毛糸編物修理器(一組) 等外 イマツ防虫香(一函) 應募者全部
大阪市·大仁本町三 株式會社 今津化學研究所
●第一回抽籤 締切·五月廿日 發表·六月上旬
景品總額 五十萬圓提供!! 空くじなし

新改良型의獨特點 宮澤式中耕除草機 人氣의焦點斯界의泰斗
除草機界最高權威
大量製作 原價提供 實質主義
(全鋼鐵爪鉛着カシメ式裝置 前後輪深淺調節自由自在 滑走板特種構造進行輕快)
참理想的(斷然優秀 驚異的廉價)
各種除草機 打穀機 製作發賣元 宮澤農具製作所 兵庫縣加古郡天滿村 振替大阪八六九一
◎特約歡迎(照會乞) (各寸在庫豊富)

腫氣 創傷 고약 피부 青山膏 定價 10 20 30 30 50 100
研究所 化學 京城光化門四街里 青山藥局 振替京城18135 電話光化門1171
代理店 新井藥房·木村藥房

最新型 록키-型 高級萬年筆
宣傳奉仕特賣中 最新록키-型 三八金本張裝具付 三號ベルブ付 定價三圓
萬年筆仕入은 特히信用잇는工場을 撰擇할것이重要함
見本希望하시는분은 九十二錢을 前金으로付送하라 代引은 拒絶
詳細カタログ進呈 各種金ペン萬年筆製作 名古屋市南區高畠三〇
森音製作所 振替名古屋一八四八番


一生の損 惡筆文字は
手紙習字講義
但只一狀簡單으로쉽게就職하고 僅히一回의文字出世의길이열이는例는만흐나이다 本會의편지 習字筆書各科講義로工夫하면엇더한文字나 短時日에한 ... 無代進呈 ◇東京牛込 ... 手紙習字會


優秀國產品 オスピリン錠 (오스삐린)
感冒頭痛 齒痛神經痛
解熱鎭痛作用顯著하야서絶對酸臭안나고連用해도胃腸障害업는優秀國產品임
價格 五錠 .二〇 低廉 二十錠 .五〇 全國各藥店に有
發賣元 鹽野義商店 大阪市東區道修町 東京日本橋區本町 京城南米倉町

奇峰은雲表에削出 眼下엔群山이跪朝

◇◇漢陽의主峯白雲臺頂角에올라◇◇

【四】 快哉！"三銃士"부라보ー！

頂丹…文 超熊…書 九文…高

◇……백운대의허무러진성첩을 길삼아 최후의목표요 최고의절정인 백운대를향하야 등반하기시작하얏다 올라가며보니 오히려제일봉이라는 백운대보다도 염초로보이는 인수봉(仁壽峰)이 도리혀솟아 하보인다 그리고남쪽으로 불쑥내밀은 만경봉(萬景峰)이 더욱귀이해보인다 구부러진 물외(水瓜)모양으로 발부칠곳하나 아니보이고 운소에솟구친 인수봉의 검은자래가 마치천범하기어려운 무슨신비로운 성체(聖體)와가치보인다 그가튼 인수봉에 어듸로 엇더케올라갓는지 두어쌍의 남녀가그정상에서 한두개의점(點)과가치 보여 시속젊은사람들의 유난스러운 작란을자랑하고잇다

◇……어려서 구한국시대의 소년독본이든 유년필독(幼年必讀)에서 읽은바 삼각산의 인상과 백운대의지식으로는 도저히 나가튼 약한체질로서 용이한등반을 못할것가탓드니 근년에이르러 맷맹(盟)해가둘의보기로철쇄와 철란간을해 노은 덕분에 떡으나수월하게 올라갈수잇섯슴을 못내감사히 얏다 백운대에서 기념찰영한 몃분 거의산상분만에 백운대정상에 발을떡주니 남이나 북이나 동이나 서이나 서으로 되하나 거칠것업시 안계가 탁트인것이 실로 흉금이상쾌하고 입대것은것이 이곳을오르기위한 로력이엇슴을 생각하매 스스로 정복자(征服者)의 희희를짓기겟다 우리세사람은 어느틈에 자긔도모르는사이 두팔을 버리고『부라보』소리를지르며 뛰를 닷지못하얏다

◇……정상에 올라가보니 건천 바위가 도하나잇고 그위에는철항(鐵杭)으로 방향과 지명(地名)을 표시하야 내다뵈이는곳이 재절로 다알수잇도록 되어잇섯다 그러나 군중의 손에 꺽기여져 난군들의 멧개는 뜻업는작 것이 유감이엇다 언친비위에 올라서서 사방을 살피니 만호장안의 안산(案山)으로 괴묘하는 종한옷든 종남산(終南山)이 남작 해보여 멀지보다 그다지놉흔것갓지아니하얏고 서으로 인천(仁川)一황해(黃海)는 비슬리에보이는 것시(眼)를가다보인다 멀지보다 백사청미롭(米粒)에 불과하는 백운대에서 내다보이는것이 미혜의를라고 오천미틀이상의 고공에서 하계를내려다볼수잇는 오늘이나 리상에서본는바와 산상에서 보는바 그느껴지는바가다르다

◇……뒤로돌아서면 개성송악산(開城松嶽山)이 엄연이 괴측된드시보엿고 압흐로내다보면 어린아이 북악산(北岳山)이 머리를맞이고 동모들에게 버티는 어염분아기의 뒤래도와도가탓다 고려(高麗)에서 개성에 전도(奠都)할때 구름이 가리여 삼각산을 못보앗다가 구름거친뒤에 넘거다보이는 삼각산의 규봉(窺峯)을 고려에 도선(道詵)의 현계로 철척십이(鐵尺十二)를 만들어 안치고 삼각의 산수기운을눌르다든 송도의 옛이야기를 생각하고 年年華咲金脈莊 夜夜星明鐵尺懸라든 김운양(金雲養)의 개성회고시가 머리에떠올라 허잘것업스면서도 공연히 벗생기고자에는인간의 작난을 비우서도보앗다

◇……신라(新羅)시대에는 지금의 백두산(白頭山)과가티 국경의 큰산이엿고 그후에 백제(百濟)시조 온조왕(溫祚王)이 『북한(北漢)』에 도읍하얏슬때는 국도의 주산이되얏섯고 고려시대에는 국도의 주산을넘어다보는 규봉이되얏섯고 리조에 이르러는 도로 국도의 주력이되어야 오늘날까지 네련은 삼각산 그것은 여러번 그역할(役割)이 달라젓섯다만은 언제나 제자리를 변함이 업는모양이다 다만 그사이에 두실이무상한 인간의일이 이리고처지고 저리 변개되엇을이리라 지나온 평생에 겪근바 만휘 한마듸말업는 삼각산압흐로다아올 미래인들 말할리업서 나여 그대로머리를도리키니 황해로장기는 사월의저녁 해가 벌써갓고들어간다 멀리서작 난감가튼 긔차가 실연고름도하며 한강철교를건너온다 (此項完)

(사진은 삼각산백운대 꼭대기, 만화는인수봉 꼭대기)

渡航嚴監에派生된 視察團의逢辱劇

俗厚驛視察團病臥死亡脫團事件으로 今後의渡航은一層困難化

국도로에서중한 도항방지 정책으로말미암아 이러난희비극으로서 함경선(咸鏡線)속후역(俗厚驛)주최일본내지려행단(日本內地旅行團)이 동경(東京)시찰중에 사자(死者)탈주자(脫走者)가속출한사건에대하야 철도국(鐵道局)에서는 사건의진상을 조사하는동시에 금후여당국주최의 려행단체에 대하야단순한 선전본위의 려객흡수책을경계하며 단원의모집에도 신분과주위의사정등에 대하야 충분히조사하야 단체의체면을 보전하도록하고 단체를모집한해당역 당국자가 그단체의 안내를담당할때에는 공무출장의 형식을취할것과 단체모집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잇든점에대해서도 개선고려하야 금후그런사고가 절무하도록 하는중인데 려의속후(俗厚)역주최 려행단체의경과진상은 다음과갓다 함경선속후역에서 지난이월 한순아래 부근주민으로부터 일본내지시찰단을 모집하야 단원조선인십팔명(男十二, 女六)을 어덧슴으로 동역장주재성(朱再成)씨가 인솔자가되여 삼월십일일 속후역을출발하야 경성경유로 일본내지로향하얏는데 일행이하관(下關)까지 도착하자도항증명(渡航證明)문제로상륙치못하고 다시부산으로 도라와서 주역장(朱驛長)은 철도국의 체면에관계가큼으로 여러가지로알선한결과 북청경찰서(北青警察署)를통하야 부산서로부터도항증을 어더가지고 재차하관으로건너갓다 그일행중에는 동경에서공부 하는아들을맛나려가기 위하야 동단체에 가입하얏든 일로인(氏名未詳)이잇서 하관을출발할때부터발병하야 동경에 도착하자 급성 폐렴(急性肺炎)에걸녀 겨우사랑하는아들의손목을쥐자마자드듸여절명하엿다 그뿐안이라 동경에도착한후 부터는 거의전원이 단체행동을하지안코 인솔자의 안내를 듯지안이하엿다 한다그리저러 여러가지고 경을겪고동월이십륙일동경출발하야조선도에라오려는 지음에일행중 함남북청군평산면(北青郡坪山面) 리동호(李東浩)(三二)이라는남자와동면장춘방(張春房)(三七) 동면 조순금(趙順金)(三〇)두녀자 합계삼명이병으로 려행불능에빠저 일행은 이삼명을 남기고전긔사망자의유골(遺骨)을가진 청년한사람을 새로일행중에 끼워동경역에 집합출발 하얏는데 출발직전에 북청군평산면(北青郡坪山面) 김대교(金大教)(三〇)가 행방불명이 되여버리엿다 이에 동내인 동역장은즉시 횡빈(橫濱)경찰서에신고하야잇슬뒤에호총서(戶塚署)의손에 붓들려금까지 되엿다 이에동려행단은 삼명의병자와일명의구금자를 남긴후 죽은 사람의유골을가지고삼십일일에겨우도라와잇다는데 아직도 남기고온 당국자가교섭을진행중이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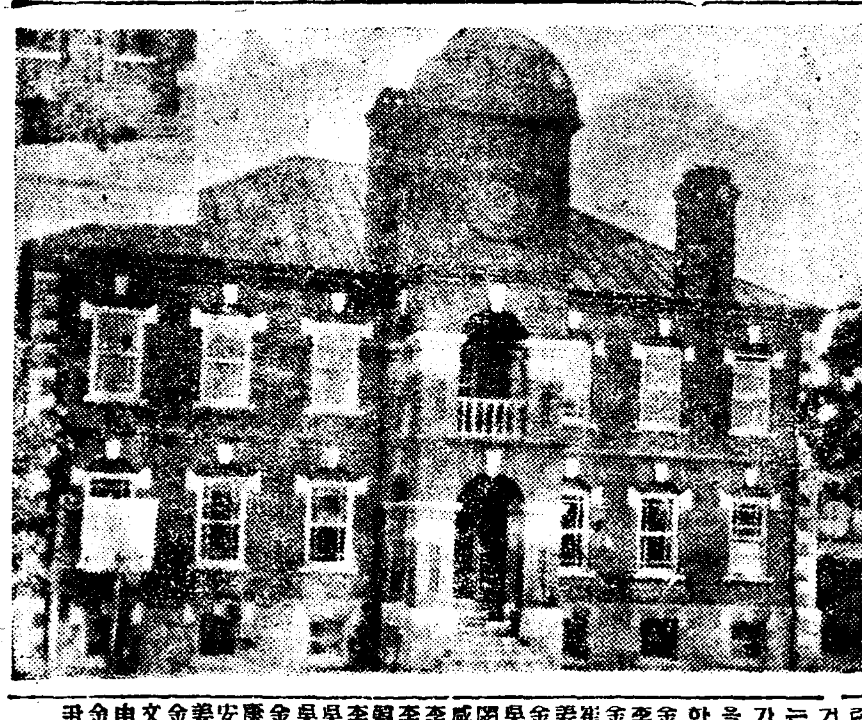
收金後橫領逃走

시내신정(新町)사번지심상봉(沈相奉)의 우육점에수금원으로잇든 안병익(安丙益)(二一)은 지난륙일에수금한돈 일백팔십원을 집어가지고 어데로인지자취를 감추엇슴으로 시내각 경찰서에 수색원을 제출하엿다

富豪稅金不課 辛辣한質問

崔昌學金鍾翊兩富豪에 府議稅金等級查定會서

소화십년도 경성부 제이부특별경제등급결정회(第二部特別經濟等級決定會)는 십이일오후네시이십분부터 경성부청회의실에서 이달(伊達)부윤 의장아래 개회되엇는데 중촌(中村)세무과장의 설명이잇슨후 류승복(劉承復) 의원으로부터 죽첨정(竹添町)일정목 일번지 최창학(崔昌學)씨는 남산정(南山町)에서 산 … 청정으로 공문서의 왕래까지잇는데 호별세를 부과하지아니하얏고 김종익(金鍾翊)씨는 오천여원의세금은 아니내고잇스니 웬일이냐고 질문의 일시(一矢)를던지매 중촌세무과장이 일어나 가비엽게넘겨버리는 답변이잇슨다음 류씨는 계속하야 질문하얏스나 결국전원위원회에 부락하기로하고 폐회하니때는오후네시반이엿다



協成實業의躍進

卅萬圓財團法人認可 八十餘名의有志들이出捐

부내락원동(樂園洞)협성실업학교(協成實業學校)에서는 지난 삼월이십구일부로사십만원재단법인인가가나서 그긔초가 더욱공고하여젓다는조선교육계의새로운쾌소식이다 이학교는광무(光武)십일년에 서북협성학교(西北協成學校)라는 간판하에 창설된후오성(五星)학교 협성실업학교에이르기까지 귀구한운명을밟어오는바 이번에 삼십만원재단이완성되야 종래조선계몽운동에 만흔공적을 가진력사깁흔이학교는 탄탄한대로를거러가게된것이다 현재 이학교에는 상과(商科)와 공과(工科)두과가잇서 두과합하야 생도약삼백명을 수용하고 이는바이재단에 기븐한유지들의씨명은다음과갓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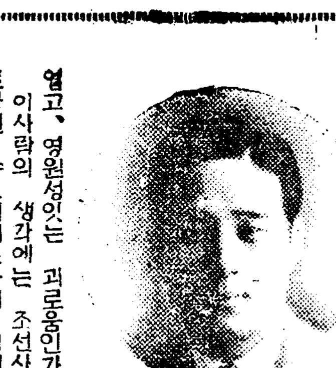
金志淡 李鍾禎 金亨燮 崔在學 姜華錫 金允五 吳鉉玉 閔丙德 咸錫泰 李廣鉉 李正鉉 鄭東燦 李寬淳 吳致殷 吳龍煥 金永煥 康秉鈺 安載壽 姜世馨 金達浩 文應奎 申鉉義 金禮顯 尹弘圭
金準炳 崔麟 金斗燮 金瑞經 盧基崇 朴鳳憲 黃甲永 鄭達河 鄭世胤 朴經錫 金鐵衡 朴箕錫 洪勢道 金壽哲 吳昌煥 吳朋殷 金應石 金基道 崔時俊 金潤璜 李應俊 金鍾亨 金洛衍 吳景煥
許憲 尹益善 朴漢榮 姜玖熙 金達鉉 周秉會 黃仁永 金鼎震 鄭鳳朝 車弘均 金駿鍵 金應經 李基燦 安炳儀 劉國燮 明以恒 金浩淵 吳熙源 方應謨 金鵬義 金用鉞 金應鉢 金相殷
金鄂 李交俠 張起學 全禹鉉 太晋奎 崔曲三 盧翼根 元孝燮 車豊鎬 李東悅 金濟玉 韓泰卿 車明鎬 崔昌學 楊濟龍 朴龍雲 金道俊 李之松 李光世 朴與植 車昌鎬 任基八 許然

(사진은 동교교사)

渴望하든春園小說

그女子의一生

春園 李光洙 作　夕影 安碩柱 畫



本社前取締役副社長 李光洙氏는昨年五月 心身休養次로 職을辭하고 爾來 靜養生活을하엿스나 豫定한休養期도갓나고 健康도 恢復되엇스므로 다시 本紙上에 執筆하게되어『一事一言』과 小說『그女子의一生』도 數日內에 繼續執筆하게되엇습니다。 氏의 健康恢復과 繼續執筆을보게된은 讀者諸位도 本社와한가지로 깃버하실줄밋습니다。 來十六日附 夕刊五面부터『그女子의一生』을 揭載할터인데 挿畫는夕影安碩柱氏가맛게되어 또한異彩를보할줄밋습니다 (寫眞은右가 作者春園李光洙氏요 左가 夕影安碩柱氏)

作者의말슴 소설『그女子의一生』은 작년에 이사람의 신병으로 중단되엿섯습니다 독자중에는 이소설을끗을 맺즈라고 권하시는이도잇기로 다시쓰기로 하엿습니다 찰하리 새소설을 새로 쓰는것이 낫지아니할까 하기도하엿스나 역시 권하여주시는대로 쓰는것이 조흘듯하야 계속하야 쓰기로하엿습니다。

지난 일년동안 반성하고 무상하는 생활을 한결과로 재래에 써오던글이 불만한점도만치마는 사람이란 아모리변한대도 사람이라 일년동안 생각해ㄴ앗다고 별신통한것이잇슬것이업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러한 일년을 아니가진것보다는 나으리라고 이사람 자신으로는 생각하고십습니다。

『그女子의一生』은 이사람이지금까지에 써온다른 소설보다는 멧가지점으로 보아 다른점이잇으리라고생각합니다。 나는 이소설속에서 사람의 영혼의 움지김을 그려볼가하엿습니다。 이사람은 지금까지에 대개는 도덕문제, 특히 민족과 사회에대한 개인의 도덕문제를 취급하엿스나 이소설『그女子의一生』에서는 한거름 더깁히들어가서 영혼문제를 취급해볼까합니다。

『그女子의一生』에 지금까지 나온 인물들……주인공인『금봉』이라든지, 기타여러인물이 이압흐로 영혼의 갈등으로, 고민으로 들어갈 운명에잇습니다 금봉은 악의 밋바닥에까지 빠젓다가 영혼이 눈뜨는경로를 밟게되엿거니와 이역시 오늘날조선사람의 한 그림자라고 이사람은 밋습니다。 인생에게는 가난한 괴로움도잇고 사랑하는 괴로움도잇고 이별하는 괴로움도잇고 구하야엇지못하는 괴로움도 잇서서 인생을 괴로움의 바다라고하거니와 영혼의 괴로움이 그중에도 큰 괴로움이 아닌가 합니다。 깃븜에 잇서서도 마찬가지인가 합니다。 영혼의 괴로움에서 버어날길이 업고, 영원성잇는 괴로움인가합니다。 이사람의 생각에는 조선사람은 정신적괴로움에서 경제적괴로움에 올마와 잇거니와 영혼의괴로움, 다른말로하면 종교적괴로움의 시긔에、하발을 들여노코잇다고봅니다。 이사람은 외람되이, 금봉의 일생에서 이세가지민족적괴로움을 차례로 그려서 마즈마계단의 괴로움에 들어가볼까합니다。

來十六日夕刊부터續載

瀆職傷害致死罪 前巡查에四年役

良民을不法拘引코亂打致死 一審대로覆審서求刑

구장때려죽인순사의공판= 함남정평(定平)경찰서에 근무하든 순사 탁두원(卓斗源)(三二)에 대한 독직 상해치사사건의 공소공판은십이일 오후에 경성복심법원에서 지전(池田)재판장담임 조전(早田)검사의 립회아래 개정되엇는데 피고탁두원은 작년십월 당시정평서의순사로 근무중맞친 라남(羅南)과 함흥(咸興)방 련대의 추귀련습이 정평에서 거행되어 피고는 민중취체의명령을 밧고 동군부내면봉양리(府內面鳳陽里)를 순찰하다가 동면 태양리(太陽里)구장한명락(韓明洛)(二〇)을맛나 그동리에는군대가 숙박치 아니한다는말을듯고 그것을괴히로 데리고 동일 오후다섯시경부터동리 김리관(金利寬)의 술집에가서 김리관까지합하야 술을먹엇다 그런데 피고탁두원은술이취하자 춤을주고 노래를부르고하며 한명락이가통단선어무당의자식이라 노래를 잘하는니 또 정평농민조합(定平農組)사건의주모자김정현(金正鉉)을 입때까지못잡지도못하는바보이며 한명락자기는 김정현의 숨어잇는곳을 안다고 롱담을하엿다 이말에피고탁두원은 성이나서 한명락을 라타하고 그러면경찰서로이치하고 김정현의 숨어잇는곳을자백하게하겟다고포승으로결박하야 정평서로 가는 길에 길바닥에 혼도되도록 전신을 구타 하엿다 피해자 한명락이 그와가치 매를맛고 길에 쓰러저 이러나지 못하자 피고는 동행 하든 김리관을 식혀 우차에한명락을 실려서동인의집으로 보내어 이튼날오전여섯시까지 결박을지어두엇다가 겨우 본인의집으로 돌려보내엇다 그런데 동실사입에 한명락은사망해 버렷다 한명락이죽은뒤 한명락의 어머니도 원통하야 독약을먹고죽엇다한다 피고는 함흥지방법원에서 사년징역의 언도를받고불복공소한것이다 당일검리가 끗난후 조전검사로부터 사년징역의 구형이잇섯는데 언도는십구일 이라한다

昌慶苑夜櫻二日 入場者가六千名

창경원(昌慶苑)의 야앵(夜櫻)제 이일인 십이일밤은 전야의한랭한 일긔에 비하야 저으히그추위가풀린탓인지 입장자의수는 전야의 삼천칠백을 훨신넘어 륙천칠백육십명이엇스나 아직껏 례년의 맷만이란수자엔 현격한 차이가잇다 라한다

洪氏夫人特志

長薰普校에二千圓寄附

시내 장교정(長橋町)광덕상회(廣德商會)주인 현용건(玄容建)씨의 자당인 수표정(水標町) 구십팔번지 홍씨(洪氏)부인은 칠십오세의 고령으로 평시에 육영사업을 … 저축하얏든 현금이천원을 이번에 장교정장훈보통학교(長薰普校)에 기증하야 경비를 보태게하얏는데 동학교관계자는 물론이고일반이 감사하야 마지안는다고한다

某商校生이出家 『天國行』遺書두고

시내계동(桂洞)일백삼십구번지신종건(申鍾健)의 방에거숙하고잇는모상업학교생도김광훈(金光勳)(一七)은 작십이일 오전십일시경에 그한방에 잇는동급생 김태규(金泰奎)에게 『나는사정이잇서천국을차저간다』는간단한편지를써 놋코어듸로인지 가버리엿다 그편지를본 김태규는즉시 경찰에신고하야방금 각지에수사를 수배중이라한다

京平蹴球 今日부터

兩軍覇氣滿面

京城蹴球團對平壤蹴球團의 第三回定期蹴球戰은 이으고今十三日과明十四日의 兩日間每日午後四時부터京城運動場에서擧行할터인바 第一回와第二回에 平蹴이全勝한뒤이라 京蹴에서는 雪辱의好機를마즈듯이全京城의精銳를網羅하야必勝을期하고잇스며 常勝軍平蹴은 中國遠征을目標로練磨한터이라 兩軍의對峙는자못 戰前의豫想을不許한다

東大強陣益韋 全普專善戰不及

東大招聘籠球第三日

東京帝大籠球團招聘戰第三日(對全普專戰은 十二日午後 五時부터京城運動場코ー트에서 열리바 이날晴明한 스포ー츠날씨엿스나 地盤이잇그례워不利한『코ー트』아래 開戰되엿다 來征以來京城OB와 全延禧를이긴 強豪全普專軍의 라는 東大軍과 開戰時間부터 極度로緊張味를띄우고 非常한激戰을 展開하엿스나 六尺四寸의鹿子木 六尺二寸의田中兩君의 長身을利用한非凡한活躍에跳躍되여普專全員의張儀苦鬪도效업시 드듸여四十九對二十九로 敗退하얏다 이러하야 今十三日午後五時半부터는 全京城選拔軍과 對時케되엿다

(寫眞은 兩軍의陣容)

東大49【26-23 / 23-16】29普專

全普專對東京帝大戰은 當日午後五時十四分부터 牧山, 田成鎬兩氏審判아래 開戰(게임四十分制)

【前半】普專은 金致雲의센ー타ー로하야 好調를보이드니 東大의 攻擊漸次로 暴威를發揮하야淺野, 田中, 鹿子木等의連續, 乃妙히 六分에벌서 13…2로東大斷然리ー드, 七分과八分에申光浩, 辛在廉의 三野投로기조케를 인되여 13…9로 一時肉薄하는 듯하드니 東大俄然攻擊에나아가 畑, 鹿子木, 田中의三人平衡한運攻으로悠悠히 리ー드하야 十七分에 20…9로 스코어는또버러지니十八分에 安台慶一野投와二自由投로 挽回하야 20…13으로되엿다가 東大의 好連絡과『스피ー드』에 普專은 攪亂되여 23…13으로東大斷然리ー드하다

【後半】二分에申光浩의『원핸드숏』과金致雲의『점프숏』으로 一時氣勢를올리니 東大猛然히攻勢에나아가 九分까지에31…17로普專苦戰을 거듭할뿐으로東大『원싸이드게임』을演하야 十四分에 42…19의大差를내이어 勝運은이미기우러지니 十五分에 東大는 『멤버』를交代하야 第二陣으로對함제, 普專多少得勢하야安台慶金致雲, 孫彼得의 勇躍으로 十七分에43…29로追擊하엿스나 十八分에 田中, 淺野의二野投成功하야 드듸여49…29로東大快勝하엿다

反	前	後	【東大】		【普專】	前	後	反
0	2	4	田中	F	申光浩	2	2	3
0	0	0	河野	F	孫彼得	0	4	2
1	6	1	畑	F	崔海龍	0	0	0
0	10	11	鹿子木	C	金致雲	3	6	2
0	0	0	水越	C				
1	2	0	相馬	G	金化泳	0	0	0
0	1	1	小原	G	安台慶	4	4	1
2	2	9	淺野	G	辛在鶴	4	0	3
				G	宋基宇	0	0	1
4	23	26				13	16	12

신발견된 림질·매독을

속히고치는제일조흔약 (조선총독부출원허가제)

본사가 절대로 보증하는 림질매독치료약은
제국대학의파대학병원
영미독불의파대학병원
에서최고치료약으로서 찬양사용하며, 또 이것은 절대무해한약이라서 그약효에대해서도 무효한때에는 돈을도로드리겟다는것이며 『이이상가는약은 업다』고하는 절대적 신념을 가지고 정제한것이다。 림질매독치료를 다해보아도효과업는 환자는하로바삐 이약으로서 전치되시라

내무성위생시험소보증부함

전치자속출, 레장이산갓다

山口縣山口市 古屋準吉
본인은 지난일월중순경부터 림질에 몹바하야, 못쓸구전매소에서 삼원짜리와 사원짜리를 연속복용하엿더니, 심하든통증이업서지고 나어갑니다

岐阜縣可兒郡 墨田萬司
소생이 만성림질로 밤마다 귀사의 치료제로 전치하엿습니다 이번에도 재발하엿기에 역시 귀사의 치료제를 복용하야 오날까지 이주일만에, 경과가양호합니다

新潟縣中頸城郡 石田正義
본인은 림질에 걸리어 이번에 귀사의 림질약을 사용하엿삽더니 차차나어갑니다 감사하나이다

秋田縣平鹿郡 佐佐木雄吉
귀사의 림질약복용후 팔일, 림사는 거의보이지안습니다

鳥取縣東伯郡 谷口輝雄
림질로 고생하엿삽더니 복약후의 경과가 양호하야 아품과고통이 개이고 보통때와 다름업시 되엿삽니다

府下泉北郡 山本正香
귀사의 치료약을복용한후에 일로 고통이덜치고 쾌차해갑니다

神戶市灘區 山村喜一
의사와 그외의약도 복용하엿삽니다마는 전쾌되지도 아니하야 친지에게 귀사의림질약이 잘듣는다는 말을듯고 세병픽 사다가 먹엇삽니다 지금은 고통도그치고 아품도개여 전치되엿…

香川縣三豊郡 白川優
소생이 매독으로 고생하더니 더분에 그후는별로조하저서 금엔 아조 거의 국부의상처도 낫삽니다 오직 귀사의약의 조혼덕분인줄 아옵고감사하나이다

이상은 지면에 한이잇으므로 려장의 일부를 게재함에 불과합니다 또, 본사의주약은 의약학상 최고권위약으로 정평이잇습니다。 그절대효력은 다년간상실험의결과 의약학계에서 철저히 전치약으로 추장하시는 근본적치료약입니다。 하로바삐 이약으로 전치하십시요。

림질약두제 림병제(팔일분)팔원 (삼일분)사원
매독약두제 매병제(십일분)팔원 (삼일분)륙원

電話及振替口座新設 電話本局二三六三番 振替京城二三一五七番 京城郵便局前 有田ドラッグ

제일제약인고로 다른약점에는 팔게하지안습니다 좌의 有田도락구전매소에서 사십시요

有田도락구專賣所鮮滿所在地
京城 郵便本局前 有田도락구 / 黃金町四 有田도락구 / 鐘路普信閣前 有田도락구
平壤 本局前 有田도락구 / 釜山 幸町一 有田도락구 / 仁川 宮町二 有田도락구 / 大田 榮町一 有田도락구 / 群山 驛前通 有田도락구 / 全州 高砂町 有田도락구 / 光州 本町三 有田도락구 / 木浦 榮町二 有田도락구 / 大邱 京町 有田도락구 / 馬山 京町三 有田도락구 / 淸水 港 有田도락구 / 浦項 本町 有田도락구
金二浦 本町 有田도락구 / 鎭南浦 碑石里 有田도락구 / 海州 南本町 有田도락구 / 新義州 桜町 有田도락구 / 元山 本町三 有田도락구 / 咸興 本町二 有田도락구 / 羅南 生駒町 有田도락구 / 安東縣 四番通 有田도락구 / 奉天 驛前 有田도락구 / 撫順 東六條 有田도락구 / 間島 新市街 有田도락구 / 四平街 榮盛路 有田도락구 / 新京 東一條通 有田도락구 / 哈爾濱 傳家甸 有田도락구 / 大連 越後町 有田도락구

滿鮮発売元 京城郵便局前 有田도락구

聞慶·加恩에大火災
十三戶一洞에九戶全燒
―原因은아히들의불작난으로―
六十災民露天에彷徨

【聞慶】 문경군가은면 주곡리에서는지난 륙일오후다섯시경에 일부락십삼호에서 구호가 전소되엿는데화인은 아히들의 불작난인바 산간벽지라 소화긔가 잇고 올까지 업서맹렬한 화세는바람까지 가세하야 겨우한동리를 휩쓸어 노왓는데 그중에는 현금수백원도태워버리엿고 농량과 의복을일시에소실한 륙십여인의 리재민은 노로에서 방황하고잇다 면당국에서는 구제책을 강구하는중이며 가축이십여두도 타죽엇고 여섯살먹은어린아이가 아직까지 행방불명이라한다

選鑛水被害問題
圓滿히解決

【新興】 함경남도신흥군원평면천불산금광선광장(新興郡元平面千佛山金鑛選鑛場)으로부터 배설되는도광수(鑛水)로 인하야 서원평면(西元平面)일대의 도작(稻作)에 악영향이밋침으로 관계주민은 기회잇슬때마다 광산당국자와 및관계당국에 대하야 그개선을 요망하는중이라함은 루보한바어니와 이제 주민의 요망은 관철되어동면 동남리남(東南里南)에는 성천강(城川江)에 양수긔(揚水機)를노하 관개케 되고 장하리보(長下里洑)는 천불산어구의 성천강으로부터 별도히 봇도(洑路)를내여 성천강수를이용케 되엇다는데 그비용일체와공사는 전부광산당국이부담하기로되엇다는바아직 내동보(內洞洑)에대한시설든지 못하나이로써 삼사년간 문제중에 잇든 도광수의문제도 원만한해결을짓게되는세음인데이제주민들그 실행여하를 주시하는중 이라고한다

寧日업는臨江縣!
又復紅軍에被襲
慈城對岸三道溝를來襲하야
人質拉去만도四十名

【平壤】 홍군(紅軍) 진려장(陳旅長)편래(平來) 효장청(孝長靑)의 합부원 이백여명은 구일오후십일시경 평북자성군(平北慈城郡) 대안림강현삼도구(臨江縣三道溝)를 습래하야 촌공소(村公所)를 포위하고 습격을개시햇스므로 주둔중의 현경찰유격대원 십여명은 촌공소 성벽에서 필사의방전을 햇스나그 사이에 비군은성내에 침입하여 인질다수와 금품을 랍거하엿가는데 몰산에서의 산포(山砲)의 위협적 사격으로 그들은 십일오전한시경 퇴각하고말엇다 피해는 주민사자이명 인질랍거 사십명 금품천원인데 그들에게도 다대한 손해가잇슬모양이며 목하 추격중이라한다

姓名모를屍體

【金浦】 지난십일오후사시경에 김포군 군내면감정리(郡內面坎井里)저수지 부근에서 중년남자의 시체를발견하엿다는 소식을 접한김포서에서는 곳한공의(韓公醫)를 대동하고 현장에 급행하야시체를검시한 결과 행려병사자 인듯하고나이는 오십이삼세 가량되는 중년으로서 죽은지도 약일주일 가량되는듯하다하며 주소씨명 불명으로당면사무소에서 가매장하기로 되엿다하며 경찰은 그신원을 조사중이라한다

泰川郡에大山火
百餘町步를燒失

【泰川】 평북태천군강동면(泰川郡江東面)기우산(祈雨山)식림조합대부구역(殖林組合貸付區域)에는 지난팔일 오후십시부터 불이이러나 약백정보에궁하는 산림을전소하고 마츰 당지에 출장중이든 식림조합감시원이 부근동민백여명을 출동식여 극력진화에 노력한결과 익일오전륙시에 겨우진화하엿다는데 발화원인과손해는조사중이라한다

(上)新興學術講習所卒業式 (下)는晉州裁縫講習會記念

無産兒童教育機關
會成學院開校
金京祐氏五百圓喜捨

【會寧】 당지상공실업계중진인최면재(崔冕載)김서중(金瑞仲)리용석(李容碩)삼씨의열성으로보통학교를졸업하고 학비관계로 상급학교에못가는 아동을위하야 회성학원(會成學院)을 설립하려고 그동안관계당국에 교섭하든바 이번 교사로사용할 청년회관의 수리에분망하든중 금월십오일에 개교하기로 결정하엿다는데 원장은 김서중씨 로정원은 오십명이라는바 벌서정원을초과하야 칠십삼명의 지원자가잇다고한다 더욱히 동교의장래의발전을위하야 회령대정통(大正通)김경우(金京祐)씨는 일금오백원의거금을 희사하엿다한다

定州強盜犯被逮

【雲田】 지난삼십일밤에 평북 정주군대전면대흥동(定州郡大田面大興洞) 김정찬(金鼎燦)과리병엽(李炳燁)의집에 강도가침입하야 현금을강탈도주 하엿다함은 긔보한바어니와 이래소관운전경찰관 주재소에서는 범인수사에 노력중이든바얼마전에 체포되엿다는데 범인은정주군대전면운전동 (定州郡大田面雲田洞)삼리에 잇는 김용제(金用齊)로 판명되엿다한다

給水功德한
兩氏不忘碑

【安岳】 지난팔일정오경에황해도안악군 안곡면제중리(安谷面濟中里)에서는 동면제중, 봉곡, 상룡 학포(鳳谷、上龍、鶴浦)등사개리의 소작인백여명이 집합하야 안악대원면김농장 김홍량(大遠面金鴻亮)씨와 재녕안녕수리조합리사 삼렴(載寧安寧水利組合理事 森林)씨의 불망비를세우고성대한 제막식을거행하엿는데 림정헌(林廷憲)씨 사회하에 거행 하엿는데 전긔 사개리구역내에 소재한 농장 소사(農宮、畓沙)답등은 면적이 백정보나되는 농장으로서 매년 수리관계가 불리한관계로 매년작답을하지 못하고 간변작농을 하기때문에 애동소작인 사백여호는 항상궁농생활을 면치못하든바 작년에도 물이업서서 전부매농을 하게되엿든것을 전긔량씨의호의로 조합에서저수하엿든물을 전긔량등에 충분히 급수한관계로 전긔소작인들은 공전의 대풍작을보게되여 그농장에서 이만오천여석의 소출곡을엇게되엇슴으로 궁핍에서 갱생의길을 엇게된소작인들은 자진출연하야 시혜비를세우게된것이라고한다

無屆出理由로
園遊會를禁止

【大阪】 대판시서정구해로강정에잇는 대동소비조합(大同消費組合)에서는 지난칠일에 조합원과 가족들의 총동원으로 춘긔원유회를 광장에서 개최하엿든바 소관경찰서에서는 해사대가 출동하야 옥외집회의 무계출을 리유로 회원이 명중에 남자회원 어십팔명을 검속하얏스므로 원유회장은 엿지 수라장이되엿스나 동일오후 사시경에 무사히 석방되엿스며 남어지 부인회원들은 경기여흥등을 하면서 그공자경자의 도라옴을기다러 오후륙시경에 산회하엿다고 한다

咸興法院에調停沙汰!
小作爭議稀少하든江原道에서……
一日間申請이十一件

【咸興】 춘경긔를압두고소작쟁의가 아연격증하여 함흥법원관내에는 매일십수건식 조정신청이답지한다함은 긔보한바어니와 지난십일에도 십오건이나 제출되엿스며 그중강원도 강릉군(江陵郡)에서 온것만십일건이나되며 소작쟁의가 비교적희소하든 강원도에서 이와가티 급격하는 소작쟁의에당국에서도 극히중대시하고 잇다

少年讀書會創立

【雄山】 지난 삼월삼십일오후이시부터 [illegible]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임원을 다음과가티 선거하엿다

[illegible]

組合無視하는
組合長을糾彈

【新義州】 신의주양복상조합에서는 얼마전에 화재로말미암아조합경영이 매우곤란케되중 지난팔일들연히 조합장으로부터 사임원을 제출하엿다 그내용은 화재보험금 전액과 각라사점에 보증금으로잇는약삼천원이 자긔가르자하엿든 금액에상당함으로 이것을자긔가차지하고 일반조합원의 무성의를리유로 사임원을 제출케되엿것이라는데 이것을 두개로생각한조합원들은 지난팔일오후시 양복상조합사무소에서림시총회를소집하고 조합장사임과 금융사여진행의건등을 토의케되자 일반조합원은 조합장의사욕을위하야 조합을무시하는 무도터한 행동을 하고 정관개정 역원개선등이잇섯는바 역원은다음과 갓다고한다

組合長 李炳榮(辭任不受理) 理事 白基東 黃則龍 金承傑 監督 金永學 李錫柱 金得善 ▲評議員 李泰興 尹敬興 姜利興 李德明 徐光夏

싸홈지고憤해
青年鐵道自殺
仁川府外長意里서

【仁川】 싸홈하다말고귀치에자살(安奎龍)(二七)과 말다툼끗헤 싸홈을하다가 옷저고리를버서 노흔채로 목당(村木堂)시게점원 안규상(安奎相)(二六)은 지난십일 밤부터 인천시외 미도에 꾸주정을하다가 인천시외 주안(朱安)면을 향하고 달아나 에도 십일오후구시 이십구분상인 천(上仁川)역발경성행렬차에자살 를산보하다가 장내의모옹식점에 서 (술을먹다가 시내외리(外里)주 봉운(朱奉雲)가구정 정원안운홍 을한것이라한다

靜海門線受益稅
坪數割減免決定
十一日府會議에서

【平壤】 평양부에서공사를진행중인 정해문선(靜海門線)연장 구역내에 거주하는 신양리주민에게부과하는 도로수익세(道路受益稅)가 엄청나게과다하여 도로남북측의일백륙십호의주민들이모두차부담국에항의를제출하여분규를일으키고잇서그결과가주목되든바십일일부회석상에서도과세과중을간파하게되여 평수할감면(坪數割減免)을다음과가티 결정하엿다 여기에의하면 남측(南側)은 과세액(課稅額)일만사천구백이십팔원칠전에서 오천사백오십오원오십오전을 북측(北側)은 일만칠천사백이십사원오십팔전에서 오천일백사십구원사십이전을 감액하여 총액이 만일천칠백사십칠원사십팔전의 과세를하기로되엿고 또한남측은 팔십이명중에서 전부면세일명, 최저감액오할사분평균오할칠분감액 북측은칠십륙명중에서 전부면제일명 최저감액팔분 평균일할일분감액을 보기에 일으럿다한다 다는데 일반통화상에 잇어서국히 주의할일이라한다

慶南北洛東江沿岸
大規模의砂防工事
所要人員七百二十三萬人
―本格的實施에着手―

【大邱】 우리들의귀에아직살어지지가 아니한 삼남지방의 참담한수재의원인을 만드는 락동강연안일대 륙만정보의 자산(赭山)을록화 시켜 경남북락동강류역을 수해에서 건저내려하는대사방사업(砂防事業)은 수년간계획되여오든바드되여 금년오월하순경에 착수하기로 결정되여 오는십오、십륙、십칠일간 도회의실에서 각군내무주임、림업주임、림업、사방기수등 약륙십명을 소집하야 부역(賦役)에대한 부과(賦課)와 징수(徵收)며 공사실시에관한협의를할터이라는바 이공사의부역은 총인원칠백이십삼만인이라는 엄청난 수에달하며 이것을임금으로 환산한다면 삼백륙십일만오천원이 되고 금년도만하여도 칠십이만인을 사역한다하며 이획긔적사업의 완성은 이로부터십년후가되리라한다

汽車通學注意
瀧風하다絕脚

【陵谷】 지난십일오후네시사십분 경에서 출발한 백칠호렬차가오후다섯시삼분에 릉곡역구내로 진행하든중 역을거하기 십륙키로지점에 이르럿슬때에 당지에서통학하는 경성부현저동 사립회산학교오학년생인 고양군지도면강매리 성순(成淳)의 손자 리흥창(李興昌)(一八)이가 바람을쏘이고자 승강대에 섯든바 부지중에 차체의 요동함을 따라 실족이되자 하반신(下半身)이 괴도안으로 끌이여서 오른편다리는 끈허지고 두부는 중상되야 목하 생명이 매우 위태한것을 릉곡역에서 출발하는 오후다섯시사십팔분 백팔호렬차로

國有林과私有林
境界問題係爭

【龜城】 평북귀성군관서면조악시국유산림보호구(龜城郡館西面造岳市森林保護區)와동 시내삼백삼십륙번지 강명로(康明老)씨사이에 동군조악산국유림과 강씨의소유림야의경계싸홈을우금삼년동안이나 계속되여 귀성군한화제거리가 되여잇다 전긔강씨는 우금오년전당지 김보패(金寶貝)의 소유조악산사십이번십정보 삼단칠묘를 매수 하얏

當分間月尾島
自動車通行禁止

【仁川】 봄과꼿의 자연에 주린도회인들은 대자연을 차저들과산으로해매이는형편이다 그중에도인천의월미도(月尾島)는관앵(觀櫻)의명승지로 굴지하는곳이자 또한 발서부터 꼿봉우리가 우슴을먹음고 망망한대해의아지랑이는 손을 어부르는듯하야 지난일요일 에는 경성각지를 위시하야 유람객이 명을돌파하야 월미도는 자못인 인해를 이루는형편일뿐아니라 오는십삼일부터 인천부영조탕(潮湯)을개시하게됨으로 교통의복잡을예상하고 소관인천서에서는 십삼일부터 당분간월미도에는 자동차통행을 정지하리라한다

麥嶺아직數個月
벌서부터流離民
災地義城一帶春窮相

【安東】 경북의성군서부일대 (安溪‖多仁‖新平‖丹北‖丹密‖龜川‖比安)는 작년여름 미증유의 수재로 농작물의 전멸을당한곳인바 춘궁긔인 최근에이르러서는엇지할도리가 업서 류리민이격증하고 잇다는데 각면을통하야식량이 떠러진호수가 사할에 달한다하나아직 까지 당국으로부터하등의 구제책이 업는바 아직도맥령(麥嶺)여수개월 그들의생로가실로캄캄 전 동화와 갓다한다

孝子孝婦表彰

【高城】 지난십일고성군수동면 신탄리(水洞面新炭里)에서는 효자효부의표창식을거행하엿는데 이제 그효자와 효부의 상세한경력을듯건대 동리박동석(朴東錫)은지난대정십년에그부친 박광신(朴光信)씨가 병이드러 촌보도것지못하게되자 이후 이래십오성상을 낫이면산에가서 화전을파고 밤에는집에도라와서는 이웃집에도 가지안코그병든부친을위로하며공양을극진히하엿다는것과또동리리장손(李長孫)의처 김복녀는 십륙세시에리장손에게 출가하여 시집온지삼일부터 그의 조부리만석(李萬錫)이가 칠십이세의 노령으로 정호출입도못하고 노망으로 잇는것을가사에종사하는녀가에 그겨를 떠나지아니하고 온갓 공양을다함으로이에감동한 동민들은 푼전을모아이를표창한것이라한다

平壤洋服商組合
平壤支局後援
慰安運動大會
來三十日公設運動場에서

【平壤】 평안남도내에는 지금한 구제를 하지안으면 생명을연장할 수업는 일천팔백호 일만삼천오백명의 구제책을강구한결과 도지방비와이군을 제외한전도내의 구제금모집된것을합한 팔천구백륙십구원가지고 랭해지(冷害地)인 녕원(寧遠)에서천원 맹산(孟山)에 일천삼백원 양덕(陽德)에일천칠백원을각기분배하여 춘궁긔에 직면한농가의 종자구입비 (種子購入費)로지출하엿고 그밧게수해로인하여궁경에빠저잇는강서(江西)의 일백삼십호에서백원、룡강(龍岡)에백이십원을생업보조비(生業補助費)로지출하여 구제공작은일단락을고한터인데 랭해지와수해지의 리재농민들에게 이도조차지못하므로 그참정은 의연 계속하고 잇다한다

地方人事

▲松元蔵之助氏(蔚珍普校長)去八日轉動人事次本社楊口支局來訪

▲木谷義榮氏(新任楊口普校長)同上

▲尹燦奎氏(石橋普校訓導)同上

▲孫士龍氏(占方嶺簡易校訓導)同上

▲阪本憲一氏(淡谷郡內務主任)赴任人事次去九日本社僖飯支局來訪

▲黑田技手(後飯砂防事務所主任)新任人事次去十日本社僖飯支局來訪

▲大竹十郎氏(新平北道知事)赴任人事次去十日本社新義州支局來訪

社告

今般本社에서左記와如히支局을設置하엿사오니照亮하시압 朝鮮日報社白

泗川支局 位置 泗川郡邑內 支局長 朴基鐘

今般本社에서左記와如히支局을變更하엿사오니照亮하시압 朝鮮日報社白

開城支局 位置 開城府東本町一八六 右任支局長 金鎭元 右依願解任 支局長 河奎杭

謹告

泗川支局 記者 朴南濬 寫眞班記者 陳在完 顧問 朴鎬洛 同 金夢起 右新任

宜寧支局 記者 徐点俠 上一里駐在記者 沈相粟 右新任

尙州支局 玉山分局長 成□煥 右解任 玉山分局長 李鎔全 右新任

忠州支局 黃江駐在記者 李秉載 右新任

順川支局 慈山分局長 嚴勍燮 右新任

城津支局 農城分局長 許斗鍾 右解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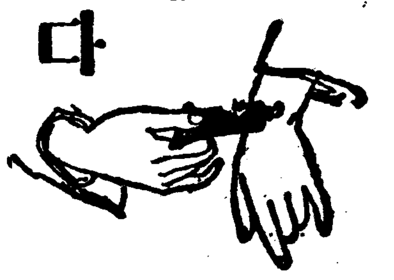
宣川支局 記者 桂熙敏 右新任

安岳支局 安岳溫井分局長 邊宗濬 同記者 金亮信 同顧問 姜能學 同 林基用 同 呂宗淳 同 柳鎬夏 右新任

高興支局 總務兼記者 金永善 右新任

春陽	光州	水原	平壤	扶安	開城	大連	舒川
學級增設同情映畵	全朝鮮自轉車競技	中朝鮮野球大會	平壤洋服商組運動	京城觀覽團募集	全朝鮮自轉車競技大會	婦人見學團募集	幼稚園同情音樂大會
▲時日 四月十五日午後八時 ▲場所 春陽公普校大講堂 ◇主催 母校同窓會 ◇後援 朝鮮日報社春陽支局	▲時日 四月二十一日 ▲場所 光州運動場 ◇主催 朝鮮日報社光州支局 ◇後援 光州自轉車輪業組合	▲時日 四月二十八、九兩日間 ▲場所 水原華城學校球場 ◇主催 水原運動俱樂部 ◇後援 朝鮮日報水原支局、水原實業野球聯盟	▲時日 四月三十日午前十時 ▲場所 箕林里公設運動場 ◇主催 平壤洋服商組合 ◇後援 朝鮮日報社平壤支局	▲時日 四月十九日發同二十一日歸着 ▲會費 五圓五十錢(食事其他經費自擔) ◇主催 朝鮮日報社扶安支局 ◇後援 安全自動車株式會社	▲日時 四月二十七、八兩日午前 ▲場所 鐵道公園그라운드 ◇主催 松都自轉車選手會 ◇後援 朝鮮、中央、東亞、朝鮮三支局	▲時日 四月二十二日午前九時 ▲見學場所 市內有志科學工場全部 ◇參加資格 普校卒業程度自十五歲至四十歲 ◇主催 朝鮮日報大連支局	▲時日 四月十六日午後八時半 ▲場所 舒川驛前農業倉庫 ◇主催 基督青年勉勵會忠南聯合會 ◇後援 朝鮮中央、東亞、朝鮮三支局

압은곳의 피부에발느면 곳난는다



サロメチール
사 로 메 지 ー 루

效能迅速·用法簡便…은 本劑의가장특색으로하는바이다。白色芳香性의「크-림」이니 다만압픈곳에 조곰발느며 문질느시면 피부를通하야 약효가심부에침투되야서 압품이곳개임니다。연적한지방성의藥品을 석거잇지안음으로 발는후옷에뭇지안으며 보매도흉치안슴니다。

神經痛 류-마지스…等의 만성고질에는 그압픈근육 또는 관절의심부(深部)에吸收되야서 진속히부은곳과압품이곳개이게됩니다。맛사-지(按摩)의補助劑로서사용하시면 더욱유효합니다。

肩臂痛 胸痛 腰痛…에는 患部에溫感을주며 鬱血을사라지게하고 압품을곳개이게합니다。압품이몹시심할때에는 따순물에잠것든수건을꼭짜서 압픈곳에대이시엿다가 그우에사로메지-루를발느신후에 다시한번쏀수건을 그우에대시면 그럭케심하든疼痛도곳개이며 이로써濕布의代用이됨니다。

運動競技 職務過勞…로인한근육과관절의疼痛 疲勞 炎症等에는 疼痛을곳개이게할뿐더러 주무시는동안에 疲勞가一掃되야 그잇흔날에는 원기잇게몸을회복식혀줌니다。그럼으로 競技前後에는 疲勞의豫防과治療의目的으로 반드시갓추워두시기바람니다。

家庭應急常備藥…으로서의本劑는 以上과갓흔症勢에 有效할뿐만안이라 頭痛 齒痛 咽喉痛等에使用하면 곳낫게되며 皮膚의가려운증 빈대 벼룩等에물닌때 발느면 殺菌 鎭痛 制痒의作用이强함으로 한시도잇지못할 家庭應急治療藥입니다。

조선국문으로쓴 설명서와시용약을 본보에보셧다고 통지하시는대로거저드립니다。

定價…… 五十錢 一圓 二圓五十錢

全道藥房에서 판매합니다

發賣元 鐵岡三元三郎商店 東京市日本橋區本町二ノ七

8-K-7

産業

南朝鮮地方에 鹽田設置有望

全朝鮮自給自足의理想下에 輸入鹽驅逐이目的

旣報한바와가티 鹽田擴張計劃은 來年度부터 第二期에 들어가 豫定地測量其他의準備를 하기爲하야 鹽蔘課를 中心으로各支局、出張所等關係方面으로奔走中이라는데 現在朝鮮에供給되는 鹽은朱安、廣梁灣、南市의各鹽田製鹽과 中國山東方面으로부터輸入되는 鹽인데當局에서는自給自足을 目標로하야 事業計劃을促進하고잇스며 그結果輸入鹽을 驅逐하려는 이때에前記三鹽田의製鹽을 全朝鮮에 配當할때는 南朝鮮一帶는 運賃其他의關係로現在의 價格보다는 引上하지안으면 안될것으로同局에서는南朝鮮에 製鹽地를 實現하려고 山本鹽蔘課長은山岸朱安出張所長과 한께前月下旬부터約十五日間의豫定으로南朝鮮一帶海岸地를 視察하고日前歸京하엿다는데그 調査資料인十箇製産 發 撤發雨量關係에 對하야研究한結果今日까지는 西北朝鮮에局限되어잇는鹽田은 自給自足의 目標下에 南朝鮮에도鹽田이設定되리라한다

大滑石鑛山

利原郡서發見

年産一萬八千 豫想

【咸興】石鹼、白粉等의化粧品을 爲始하야 비스겟트其他食料品、製紙原料、塗料、電氣工業等六十餘種의 廣範圍에亘하야用途가잇는滑石은 主産地인岡山의生産이 減少되고 忠州와滿洲産은品質이 低劣하여 滑石鑛의出現이企待되든바 이번咸南利原郡南面에七鑛區五百六十萬坪의 埋藏量을가진 良質의滑石鑛이發見되어 目下羅南細田의經營으로 設備中인데鑛層八十尺以上이 되는것이六個所나되며 一年間生産額이一萬八千噸을豫想하고잇는 東洋第一의滑石鑛이라하며 現在朝鮮製紙會社에서는 細田과合倂을 交涉하고잇다한다

機業平南의躍進

生産額二百餘萬圓

【平壤】機業平南에서는 年復年 大躍進中에잇서 昭和八年의狀況을보면 機業戶數는 約一千戶를 增加하야 十萬五百六十一戶에達햇고 生産價格은 二百十二萬二千九百九十圓從來機臺六萬八千臺가 改良機臺六千四百三十三臺로서德川郡의亢羅、成川郡의明紬、順川郡의春紗、陽德郡、寧遠郡、孟山郡의麻布를主産品으로하여絹布九十五萬八千餘圓、綿布六十八萬九千餘圓、麻布十八萬五千餘圓、交織布二十八萬七千餘圓을 生産하고잇다

또한昨年은 棉作不良인때문에 原料高로生産品의販賣狀況은 조치안헛스나 反面에絹織과 交織은 織價가低廉하기때문에 機業原料로서 消費되는便이有利하니하여 이方面에는常한發達을보기에일은것은 注目된다고한다

預金利下보다 減配가至當

目下의金融界情勢

△……土方日銀總裁談

十一日 大阪에서 열닌 全國貯蓄銀行大會에出席한 土方日銀總裁는 압에와가티 말하엿다

最近低金利의底入이란말이 잇는바 低金利의浸潤과同時에 銀行의有價證券所持가 增加케되고預金利率高로 所持資金이 短縮되야 短資市場이 狹隘化되는것은 도리혀必然的現狀이며 前月末을 이 異狀을 呈한것도 이러한根本的理由와 玉川水道二千八百圓北鐵買收資金二千三百萬圓이 市場으로부터 逃去하기때문에昨年八月證券業者가 所持하야社債로充當한때문에事實上 一錢二厘의金利를 取한것과가티 때때로의附加的原因에 不過하엿다 따라서 이것으로서 金融基調에 變化가잇다고 할수는업다 長期市場에서도社債條件의 逆轉等이라고하나事實은 過度한訂正이라고 할것이다 그러고興業債券이 五毛引上의八厘五毛로되어도 賣行이不振함은 當然한것으로 四分利國債가 一錢一厘로된以上 米券을八厘乃至 八厘五毛로보아도잘 팔릴것으로믈수업고 다만將來의 訂正은 考慮할것이라고생각한다 銀行의利差縮減이打開됨에는預金利下이나減配로될것인데一般社會의通念으로는後者일것이다信用問題로 實行難이면서도 充分한諒解알에 더욱 餘地는 잇스리라 생각한다 利下論은 一時市中銀行에 要望하는傾向이 잇섯는데 現在의大勢는 아직그곳까지 못일흔듯하다 國債消化에 잇서 年初來 前月末까지 國債二億八千萬圓 米券을 合하야 三億七千萬圓餘를 賣却하엿고 今後政府當座預金 四億圓이 撤布되엇슴으로 市場統制는 順調로 되리라고 생각한다 또 特融은 現在總額五億三千萬圓이며 不動産擔保處分은 重大한것으로 目下確固한豫見을할수업스나 早晩間解決될問題이다 今年末까지는成案이될것으로생각하며 結局國有財産으로日銀의 損失을 補償케될것이며 證券擔保의것은 벌서一億六千萬圓을 處分하고殘額은一億二千萬圓인데 現在의情勢로보면그것도 그대지問題가 되지안을줄로생각한다

硫安建價 三圓五十錢

配給組合決定

【東京電話】硫安配給組合에서 는十二日正午都호텔에서 理事會를開催하고

一、七月限까지 全部賣出할것

一、建値十貫目을 三圓五十錢으로据置할것

을決定하리라한다

工場缺陷診斷法 (四)

八、設備의管理

1 設備에對한 技術的診斷의缺絡

2 機械의運轉狀態에따한 常久的管理의不足

3 定期檢査의不足、檢査報告의制度가업는것

4 修理計畫이업는것、故障豫防計畫이업는것

5 設備臺帳이업고 修理記錄을 하지안는것

6 機械의能力減退에對하야無關心한것

7 機械設備保全費와修理費의記錄及比較等을하지안는것

作業管理

一、作業計畫統制의專門係가업는것

二、簡單한作業統制方法의改善을 無視하는것

三、製造上의手續、即命令系統、諸傳票의動向이合理的으로되지못한것

四、帳簿制度의重複、交錯이잇는것

五、作業의能力에對하야充分한調査가업는것

六、機械停止、材料手持等을때업는時間이얼마나되는것을調査못하는것

七、下請工場에工程의一部를依賴할境遇에 확한計畫이나 統制力이업는것

八、作業工程時間을調査하여두고 納期確保의處置를하지안는것

九、作業時間의分析研究及改善을 하지안는것

十、作業動作의研究及作業方法을改善하지안는것

十一、工人의作業能力을數量的으로는 考究하나그것을金額으로 換算하여보지안는것

十二、工人의作業率을一個月又는一個年基準으로考慮하지못하는것、工人一人當一個年얼마의製造金額을 計上하면조흔지認識치못하고잇는것

十三、分業의方法을틀리게하는것

十四、關係作業과個人作業의組成失敗

十五、作業에對하야 適當한作業準備(組織)를미리하지안는것

十六、製造手續 命令 運搬 配給 作業方法의遲劣로 劃이만흔것

十七、工程中間에檢査를하지안키때문에 不良率이만흔것

十八、不良工作의原因調査를無視하는것

十九、不良에依한損失을充分히認識하지못하는것

二十、屑物이나 쓴材料를利用하야作業하는研究의不足

安全厚利

一、安全

1 災害에對한訓練不足

a 一般災害防止訓練。

b 防火訓練。

c 避難訓練。

2 安全施設。

a 安全裝置의不足(特히原動機에對하야)

b 警報設備가업는것。

c 危險信號가업는것。

3 整理整頓에對한一般訓練이업는것。

4 工場、作業場의掃除擔當者가업는것。

5 通路를決定하지안코通路上에物品을山積하는것。

6 安全檢査(例컨대鑵、電氣裝置等)를하지안는것。

7 災害에對한災害의計算이업는것又災害統計로서 將來의改善을할것을모르는것。

8 安全委員會設置의推奬。

二、厚利

1 入浴設備가업는것

2 工場의食堂을 淸潔히하지안는것

3 更衣室、私物箱等을適用하지안는것

4 共濟制度의缺如、貯金獎勵의缺如。

5 食堂이업는것

6 慰安娛樂、娛樂機關이업는것

7 圖書室、研究室을開放하지안는것

8 運動會、旅行、登山等의效果를認識하지못하는것

9 機關雜誌에依한福利的效果와

10 指導、告知等에 寄하는效果를認識치못하는것。(完)

副業産品時勢週報

朝鮮副業協會調査

京城 (四月八日)

◇菜蔬類

品名	單位	價格
고구마	一貫	[illegible]
토란	同	[illegible]
馬鈴薯 白	同	[illegible]
同 赤	同	[illegible]
人蔘	同	[illegible]
외 朝鮮産	百個	[illegible]
외 土産	同	[illegible]
수박	一貫	[illegible]
同朝鮮産	同	[illegible]
茄子 溫室	百個	[illegible]
일년감	一貫	[illegible]
靑葱	同	[illegible]
쑥갓	同	[illegible]
양상치	同	[illegible]
미나리	十把	[illegible]
蓮根 土産	一貫	[illegible]
生薑 大	同	[illegible]
同 小	同	[illegible]
마눌	百個	[illegible]
乾蓮根	一斗	[illegible]
南瓜	同	[illegible]

◇果實類

品名	單位	價格
苹果 國光	四貫	[illegible]
同 紅玉	同	[illegible]
同 倭錦	同	[illegible]
梨 早生赤	三貫	[illegible]
同 朝鮮産	五百匁	[illegible]
同 今村秋	同	[illegible]
同 晩三吉	同	[illegible]
柿	百個	[illegible]
葡萄	三貫	[illegible]
蜜甘	七貫	[illegible]
栗	一斗	[illegible]
잣	一石	[illegible]
실백	一斗	[illegible]
胡桃	一石	[illegible]
銀杏	一斗	[illegible]
고추 朝鮮	百斤	[illegible]
고추가루	同	[illegible]
실고추	同	[illegible]
大棗 中國産	百斤	[illegible]
同 朝鮮産	同	[illegible]

◇家畜類

品名	單位	價格
生鷄 雌	百匁	[illegible]
生豚	一貫	[illegible]
生兎 白五百匁以上의것	百匁	[illegible]
同 雄	同	[illegible]
鷄卵	一貫	[illegible]
同	百個	[illegible]
四季鳥卵	同	[illegible]
鵞卵	十個	[illegible]
蜂蜜	石油罐一罐	[illegible]

◇其他副業品

品名	單位	價格
麥稈眞田 上	一反	[illegible]
同 中	同	[illegible]
同 下	同	[illegible]
經木眞田	同	[illegible]
杞柳	一貫	[illegible]
簿草	同	[illegible]
栗虫巢	百斤	[illegible]
椎茸	一貫	[illegible]
써러밀리온무	十貫	[illegible]

◇養鷄用鐵網

幅	目	單位	價格
三尺幅	二寸目	百尺	[illegible]
三尺幅	一寸半目	同	[illegible]
三尺幅	一寸目	同	[illegible]
三尺幅	五分目	同	[illegible]
四尺幅	二寸目	百尺	[illegible]
四尺幅	一寸半目	同	[illegible]
四尺幅	一寸	同	[illegible]

◇毛皮類

品名	單位	價格
앙고라兎毛 三吋半以上	一封度	[illegible]
同 三吋以上	同	[illegible]
同 二吋半以上	同	[illegible]
同 一吋半以上	同	[illegible]
同 一吋以上	同	[illegible]
同 梳毛	同	[illegible]
레기스兎皮	一枚	[illegible]
豚 胴毛	百斤	[illegible]

◇購買品

品名	單位	價格
豆粕	十貫	[illegible]
成鷄用配合飼	五斗	[illegible]
育雛用	同	[illegible]
中雛用	同	[illegible]
玉蜀黍 粉碎	九〇斤	[illegible]
同 中割	同	[illegible]
同 粉	同	[illegible]
高粱	九〇斤	[illegible]
同 粉碎	九〇斤	[illegible]
驅虫用粉	一封度	[illegible]
魚粉〆粕	十貫	[illegible]
糠	八五斤	[illegible]
礪殼	百斤	[illegible]

◇川魚類

品名	單位	價格
자라	一貫	[illegible]
잉어	同	[illegible]
붕어	同	[illegible]
미꾸리	同	[illegible]
가물치	同	[illegible]
메기	同	[illegible]
뱀장어	同	[illegible]
蜆	一升	[illegible]

去益有望視되는 고무靴對滿輸出

一、二兩月間輸出激增

고무靴의對滿輸出은 日本內地나朝鮮을通하야顯著히躍進되고잇다 卽從來日本內地製의 고무靴는朝鮮品에壓倒되어 對滿輸出은그다지效果를 나타내지못하고잇섯는데日本內地 고무業界도 不況打開策으로서 大阪、兵庫를비롯하야各地의業者는 昨年來滿洲市場開拓에努力한結果 今春來滿洲輸出은 漸次順調되어 布靴에對하야보면 昨年十二月은六十九萬八千三百八十二足이엇는데 今年一月에는 一躍百六十六萬五千二百六十一足 二月은百七十七萬七千八百三十一足으로 躍進하엿고그增加의部分은 大阪、兵庫方面의製品이오一方朝鮮을對滿輸出에잇서서 地理的其他價格低廉의關係로優勢이든바關稅의高率로因하야豫想대로되지못하엿는데昨年의關稅改正에依하야從來一割七分五厘가一割로引下된關係上그輸出은激增을示하엿다 卽本年一、二兩月의對滿輸出高는 三十二萬四千三百六十八足、그價額十六萬五百二十四圓에達하야 昨年一、二兩月의二十一萬一千七百十八足 十一萬六千五百二十四圓에比較하면 十一萬一千六百五十足價額四百四十圓의激增을示하야고무靴의滿洲輸出은 前途가有望하리라한다

朝鮮貿易全貌 (二)

好轉의傾向이顯著

昨年概況과그趨勢

(二) 對外國貿易의 月別

本年對外貿易消長을보면 輸出에잇서서는 對滿輸出發展을主因으로하야 例年閑散期인 年頭一月에잇서서 三百萬圓을突破하는盛況을齎來하야 翌來月月好調를示하고 上半期의增加는 六百五十九萬七千圓(三割四分)에達하다 다음下半期에도 對中貿易의恢復南洋貿易의伸張等과倂하야 依然好況을 持續하엿다고하지만 期末에 이르러 硫安과 對米輸出等이 杜絶되야 漸次不勢에 빠지고 마럿다 後半期의 輸出貿易은 結局前年同期에比하야 百六十九萬六千圓(五分)의減退를招來하엿는데 如上의大勢에따라輸出年額은 四千九百九十萬圓(九分)의增進을示하엿다 大槪本年下半期의不振은 前年同期에잇서서 硫安의新規輸出三百七十九萬圓에達하야 特히輸出貿易의膨脹을呈한것으로 이에對比하면前보다 減退한것이업스나 그額은前年同期에다음가는實績을 示하엿다

日本內地需要에 關하는 安東柞蠶絲等의 取引不振에도 不拘하고 滿洲粟의入增 其他葉煙草、豆粕等의 入津이幅轉되어 또印棉의 入荷가急激한增進을 告하고 上半期의輸入은前年同期에比하야 九百七十八萬二千圓(二割)의 激增을示하엿다 그리고七月에드러와그의 反動的傾向에豆粕을 首位로其他砂糖等의 商談이進就못되고 漸次不振하엿스나季節의 推移에따라 各重要品特히粟其他補充食糧及機械類、屑鐵石炭等의 入荷繁忙을極한것으로後半期의增加는亦五百三十七萬六千圓(一割七分)을算하야 年額一千五百十五萬九千圓(二割三分)이激增이다各月의貿易額은左表와갓다

月別	輸出 昭和九年	昭和八年	增減(△減)	輸入 同九年	同八年	增減(△減)
一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二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三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四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五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六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上半期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七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八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九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十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十一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十二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下半期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年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三】對外國貿易의國別

主要相對國別에對하야 그趨勢를보면 輸出에잇서서는 滿洲國(關東州를包含)이五千三百四十六萬二千圓을算하야 輸出總額의九割三分을占하고 前年에比하야 七百八十九萬八千圓(一割七分)의增進이다 그他는中華民國의二百四十七千圓、香港의五十四萬三千圓、埃及의 四十一萬六千圓、北米의三十一萬二千圓、英領海峽殖民地의 三十八萬九千圓、蘭領印度의二十一萬五千圓、英領印度及暹羅의各十萬圓內外等의 큰것이잇고 이것을 前年에比하면 北米는硫安의出荷皆無로因하야 二百四十三萬二千圓의激減을示하엿스며埃及은葉煙草의 出減으로因하야十一萬七千圓의 減少이나 中華民國은四十萬九千圓、香港은十七萬八千圓、蘭領印度는 十一萬二千圓、暹羅及海峽植民地는 數萬圓의 增進이다。中華民國의 增加는 紅蔘及魚介罐詰의輸出恢復에因한것이오 香港은黑鉛、小包郵便物、蘭印 暹羅及海峽殖民地는陶磁器、琺瑯鐵器의 出荷旺盛에基因한것이다 以上揭記한諸國外에 獨逸及布哇輸出이著減된것은上述한北米와가티 硫安의出荷가皆無한까닭인데 前者七十萬八千圓、後者六十一萬八千圓을激減하엿다。다음 輸入에잇서서도滿洲國이依然優越이오總輸入額七千九百五十二萬七千圓內、對滿輸入(關東州를包含)이五千八十一萬圓即六割四分을占하야 前年에比하면六百三十五萬五千圓(一割四分)의增進을示하고 中華民國의七百七十九萬六千圓 北米의五百八萬三千圓 英印의二百六十一萬九千圓 比律賓의百七十九萬三千圓 濠洲의百四十三萬一千圓 英吉利의九十萬九千圓 加奈陀의七十二萬二千圓等順으로되고 前年에比較하면 蘭印은 原料糖及重油의入減으로因하야 七十萬六千圓을著減하고 英吉利는紡績機의入增이 잇슨데도不拘하고 機械藥毛織物의減少에依하야 一萬二千圓의減少를示하엿다 그런데 北米는機械類 草、鑛石 屑鐵等의好調에依하야 二百八十八萬八千圓을激增하고中華民國은石炭 麻布 綿絲 蠶絲等에因하야 百九十五萬八千圓增加하야 英印은棉花葉煙草等의好況으로因하야 그亦百八十五萬六千圓의增進을示하엿고 其他比律賓의 好調로因하야 前者百五十二萬一千圓 後者六十五萬七千圓을增進하엿다 主要國別貿易의詳細는左와如하다

國別	輸出 昭和九年	增減(△印減)	輸入 昭和九年	增減(△印減)
亞細亞 關東州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滿洲國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中華民國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香港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英領印度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英領海峽殖民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蘭領印度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佛領印度支那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暹羅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比律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其他亞細亞諸國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歐羅巴 英吉利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佛蘭西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獨逸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瑞西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和蘭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其他歐羅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北米合衆國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加奈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其他北米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濠太剌利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其他大洋洲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布哇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埃及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其他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保稅工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合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暴風前夜 (135)

咸大勳 作 / 金態超 畵

출옥 (1)

그다음날 아츰 일즉히 성희는 령천(靈泉)정류장에서 뻐스를나려 서대문 형무소압 언덕길로 거름을 빨리하고 잇섯다 일은아츰이라 옷속으로 숨여드는 산산한가을 바람은 따스한 체온에 새로운 자극을주어 걸어가는 발길조차 가벼워 지는것 갓다。

『지금 오서요?』

『아이 벌서 오세세요?』

『저도 지금 막왓서요』

『아이참 미안 해요』

성희는 형무소압 『아카시아』나무아래 우두머니서 잇는 치수편으로 갓가히가며 미안한 표정으로 인사를 햇다。

『천만에요! 그런데 날이 퍽은찬데요』

『네 이제는 아ㅣ조 가을맛이나요 구월이십일밧게 안되엇는데 벌서 바람이 살랑살랑하고 가을 긔분이야요 프르고 맑은 하늘에 떠가는 구름장하나도 가을맛이 나는데요?』

『참시인이보시는 가을은 다른데요?』

『아이 선생님두! 형인이 보시는 가을은 어때요?』

성희는 상긋우스며 반박을 한다

『그런데 몃시에 출감이 된대요?』

『글세 일곱시라고 햇는데요…… 아이 벌서 일곱시 사십분이야!』

성희는 미안하다는듯이 외인편 팔목에낀 팔뚝시계를 나려다본다

맑은바람이 휙 모라친다 나무가지는 일제히 『쏴ㅣ』소리를내며 흔들린다 바람이 저나간 발길을 옴기엇다

『ㄴ? ㅍ?』

영희는 압서가는 치수를 가르치며 빙긋이 우섯다 ㄴ은리ㅣ배(애인)이냐는 말이오 ㅍ는 허스밴드(남편)이냐고 뭇는뜻임을알어들은 성희는

『노우』

하고 머리를 도리도리 흔들엇다。

『그럼?』

『동지야』

『뭐?』

『동지!』

『뭐동지야?』

오사감은 이상하다는듯이 눈을동그라케 떳다。

『그런데 집에서는 아ㅣ모도안이 오섯서?』

성희는 화제를 돌리라는듯 이러케 물엇다

『작년가을간도로 이사를 가섯다드니 먼길이다보니 오시지못할게야 더구나 다른 부모들이니 오실수나잇슬라구。

오사감은 갑작히 얼골에 슬슬한빗을 띄운다 그리는사히어니듯 그들의 발길은 경천뻐스정유장까지 오게되엿다

뒤 누른입 연게가 배끗배끗맴 도리치며 따우에 떠러진다

『웬일일가?』

『자연 늦어지겟지요』

『이젠 여들신데요!』

이때 옥문열리는 소리가 덜커 덕 낫다

『자기서요』

『네』

성희와 치수의 발길은 옥문압흐로 빨리 옴겨젓다

『영희-』

『아이 성희 너왓구나!』

오영희(오사감의본명)는 감격에 넘친소리로 웨첫다

『고생을 햇지?』

『아니 괜찬엇서!』

『얼골이 몽롱 부엇서!』

『아니야……』

『퍽 고생을 하셧지요?』

두사람의 반가운 정담이 오고 가는것을 방해하는게 안된 엿다는듯이 묵묵히 엽헤 서고 잇든 치수는 겨우 이제야 입을 열어 인사를햇다。 오사감은 깜작놀라 얼골을 붉히엇다。

『저 김치수선생이야 잘 불러보겟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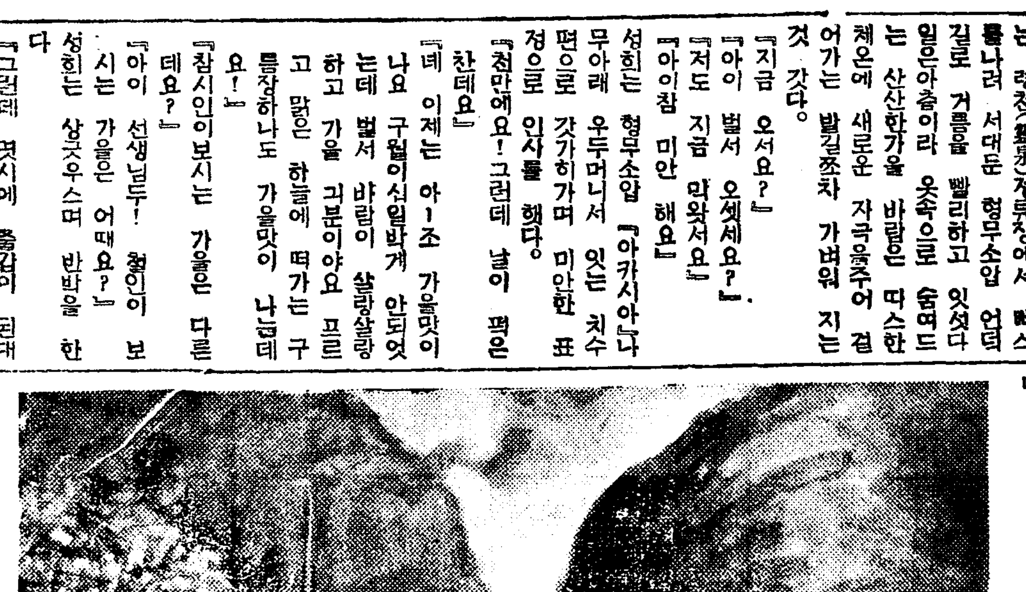
성희가 다시 소개를 햇다。

『아-참 실례 햇서요 이러케 와주서서 감사해요』

하고 영희는 다시 반가히 인사를 햇다。 그순간 영희의 머리에는 즉각적으로 성희가 결국 이 숭거운 남자와 결혼을 한 모양이군! 하고 늣겨지엇다。

『자! 어제는 가지오』

치수가 압서고 성희와 오사감은 그뒤를 따러 손에손을잡고



淋疾로苦痛하는이어보라!

淋疾治療新薬 複方 노보노ㅣ루球 (ボ ル)

(全國著名病院採用)

본제노보노ㅣ루구는 여러의학박사가 실지로시험하야 추장하고 증명한 가장들림업는림질약입니다 즉 신용과 약효로 팔리는약인동시에일본전국유명한 병원과 대학병원에서도 이것을 채용하시는 유명한 림질약이니 세상에서 내가 파는것이제일조타고 떠들고 과장하며 풍떠는 그러한약과는다릅니다 비하면 유식한 사람과무식한 사람과 갓습니다 즉 본제는지통、소염、살균、수렴、리뇨작용이현저하야 여하한 완고의 림질이라도단시일에 치료가됩니다。남녀급만성림질、부인적백대하증、오좀소태、남녀방광염、남자의 산증(고환염)섭호선염등기타림독으로되는 여러가지병에가장 특효가잇습니다

× ×

本劑는高木、井尻兩博士 臨床實驗結果 治淋內服藥으로서 醫治作用이的確하고 副作用이絶無한 優秀藥으로認定되엇고 全國著名病院의採用을밧고잇는 完全製劑입니다 一時患者를誘惑하는 誇張廣告의藥과는 判異한것이니 特히此에 注意하시고合理的製劑인 노보노ㅣ루의服用으로 淋疾을根治케하십시오

一、止膿、鎭痛、消炎、殺菌、收斂、利尿作用等이 顯著하야根本的効力이무엇보다的確

一、胃腸障碍及腎臟刺戟等의 副作用이絶無

노보노ㅣ루球에對한 試驗結果

醫學博士 井尻辰之助

國産內服治淋藥노보노ㅣ루와同種品과의 藥効優劣에就하야臨床上入院及外來患者二〇八人에게試用한結果大略如左함

一、國産內服治淋藥노보노ㅣ루를一四六例의 急性尿道淋에用한바尿가澄明하기까지의 平均服用日數는大約十三日餘로써効果를못보는三四例中其六割以上은 服用日數十日以內에其內服을中止하엿거나又는他의合倂症이잇는것뿐

二、本劑를亞急性尿道淋五〇例에內服케한바 尿가澄明하기까지의平均日數는大約四日에不過하다그리고 其效果업는七例中六例까지는內服을中止하엿고合倂症잇는二例뿐이다

三、總患者二〇八例中齊의刺戟症狀을 呈한것은二例도업고他胃腸의障碍를訴한것은二四例로서大約一一五%에不過하다

包裝及藥價

三〇球入 一·〇〇 五〇球入 一·五〇

一〇〇球入 二·七〇 二〇〇球入 五·〇〇

京城西小門町

株式會社 藤澤友吉商店京城支店

本店 大阪修道町

KN—54